

‘승리·정준영 게이트’ 또 다른 논란

“일단 덮고 보자”…거짓해명 동조한 소속사는 책임 없나?



성 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

YG “사실무근” 펴썩 뒤통사 사과 가수 용준형·최종훈 소속사도 마찬가지 사태 심각성 외면한 안일한 행태 비난

가수 승리와 정준영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내놓은 거짓 해명에 대중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매니지먼트사는 ‘공식입장’이라는 단어로 이를 포장해 전달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들과 함께 스마트폰 메시지 단체대화방에 있었던 연예인들과 그 소속사를 향해서도 비판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사안의 엄중함조차 파악하지 못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의 안일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 ‘거짓 해명’ 용준형·최종훈 그룹 탈퇴

가수 용준형이 14일 그룹 하이라이프에서 탈퇴했다.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와 관련 없다”고 해명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이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공식입장을 내 혼란을 야기해 사과한다”고도 밝혔다. 용준형은 11일 SBS ‘8뉴스’의 정준영 사건 첫 보도에

서 ‘가수 용OO’으로 거론돼 의혹에 휘말렸다. 소속사를 통해 즉각 입장을 밝힌 그는 SNS에도 “짜깁기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쓰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13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2015년 말 정준영과 불법 영상 공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나자 팀에서 탈퇴했다.

그룹 FTY아일랜드의 최종훈도 마찬가지다. 12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사건과)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루 뒤인 13일 최종훈과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최종훈의 음주운전 보도를 경찰을 통해 무마했다’는 의심을 하게 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고, 그제야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털어냈다. 이 와중에도 소속사는 “경찰에 청탁한 사실이 없음은 본인(최종훈)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4일 추가 혐의가 포착되자 소속사는 최종훈의 그룹 탈퇴 및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갈팡질팡하다 사태가 악화하자 ‘은퇴’ 카드를 꺼내 ‘꼬리 자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 매니지먼트사도 책임져야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보다 소속 연예인의 ‘입’만 바라보는 매니지먼트사의 행태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인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처음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법적 대응” 운운하며 펴썩 뒤통사만 급급해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보는 매니지먼트사의 미숙함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시가 총액 1조원 시대를 연 연예계엔터테인먼트계의 적나라한 ‘현주소’이기도 하다.

스타워킹은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위기 관리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승리처럼 10대에 데뷔하거나 어린 나이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는 연예인에게 소속사는 단순한 ‘회사’를 넘어 보호자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드물다.

YG엔터테인먼트는 13일 승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면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속 연예인이 연루된 각종 사회적 논란이 보낸 ‘위험 신호’를 외면하다 뒤늦게 내놓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

고개 숙인 승리·정준영, 혐의 질문에 묵묵부답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 출신 승리(이승현·29)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관련 혐의와 경찰 유착 등 의혹에 대해 늦은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단발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찰에 나온 정준영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후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휴대전화 원본을 제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 받으면서...”라며 끝을 흐렸다.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할 당시 약물을 사용했느냐” “2016년 불법 촬영물 사건 당시 뒤를 봐준 경찰이 있느냐” “동영상 촬영 때 걸릴 줄 몰랐느냐” 등 질문에는 아예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와 함께 있는 스마트폰 메시지 단체대화방 등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2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정준영을 상대로 동영상 촬영·유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류 정밀 감정도 의뢰했다.

정준영에 이어 승리는 오후 2시 검은색 카니발 차를 타고 나타났다. 짙은 남색 스트라이프 무늬의 정장을 입은 그는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직도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 생각하느냐” “강남 클럽 버닝썬의 실소유자가 맞느냐” “경찰 총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말씀들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단체대화방을 통해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 접대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10일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해당 단체대화방에서 승리와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도 이날 낮 12시50분 경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성 접대 자리가 실제 만들어졌는지, 여성들이 이 자리에 동원됐는지 등 혐의와 관련해 캐물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승리와 정준영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관계자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등 대화가 오갔으며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과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최종훈을 비롯한 또 다른 연예인들도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남자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주사시술~!!



비노기과 전문의 윤장호 원장

주사시술 만으로 간단하게 복합확대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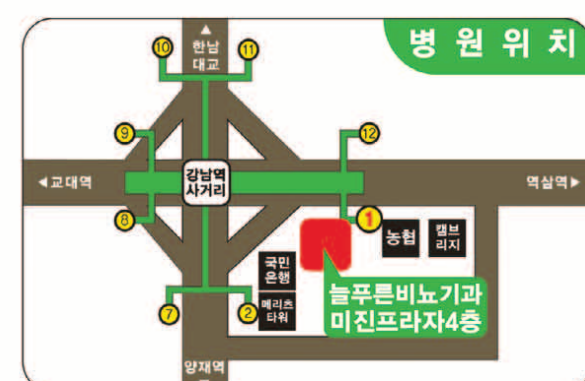
늘푸른 비노기과 윤장호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였으며, 오랜 해의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민감한 부분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확대시술이 큰 효과를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민감한 부분의 감각을 둔화 시켜주는 시술이란 쉽게 얇고, 주름지고, 늘어진, 피부층에 콜라겐 성분의 생체물질을 주입하여 피부 층을 두껍게 탱탱하게 만들어 준다 것이다.

이 시술법은 주사를 이용하여 남성 주요 부위에 휴면콜라겐과 캡슐형 히알론산을 혼합한 생체물질을 주입하는 확대시술이다. 이 시술법은 남성의 주종 부위 층이 두꺼워지는 확대효과와 동시에 민감한 부분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 제 130108-증-38478호

-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 ▶시술후 술, 샤워 당일부터 가능!
- ▶부부관계 일주일 후부터 가능!
- ▶시술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늘푸른비노기과의원 강남역1번출구 바로옆 02)3469-1900 / www.egclinic.co.kr